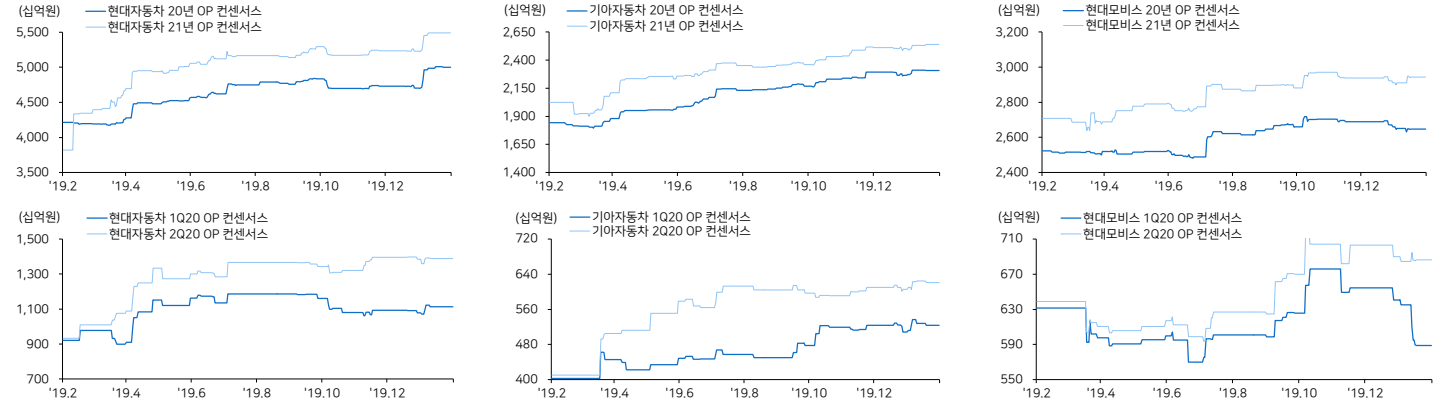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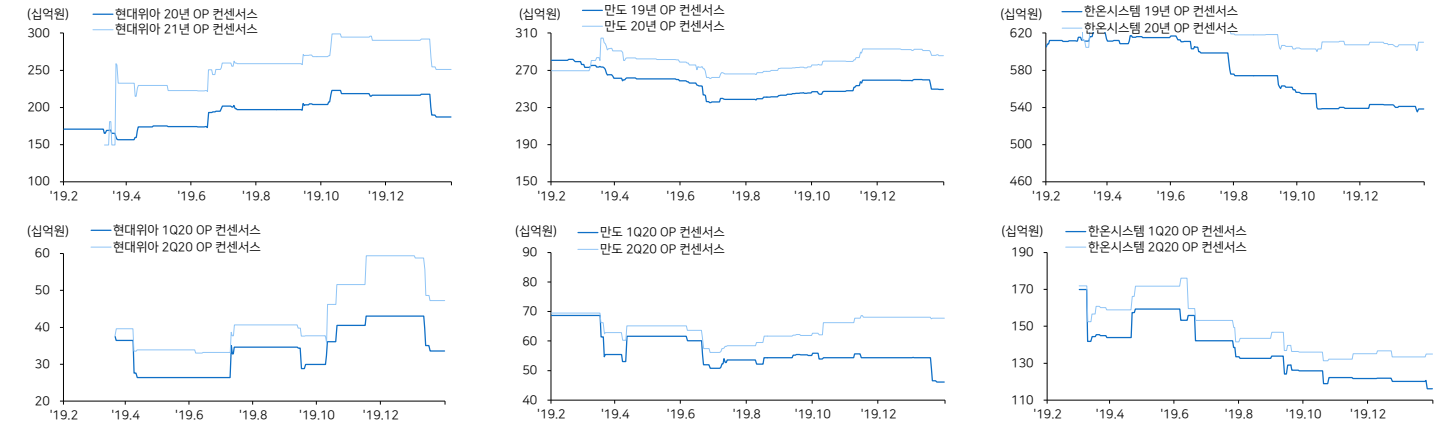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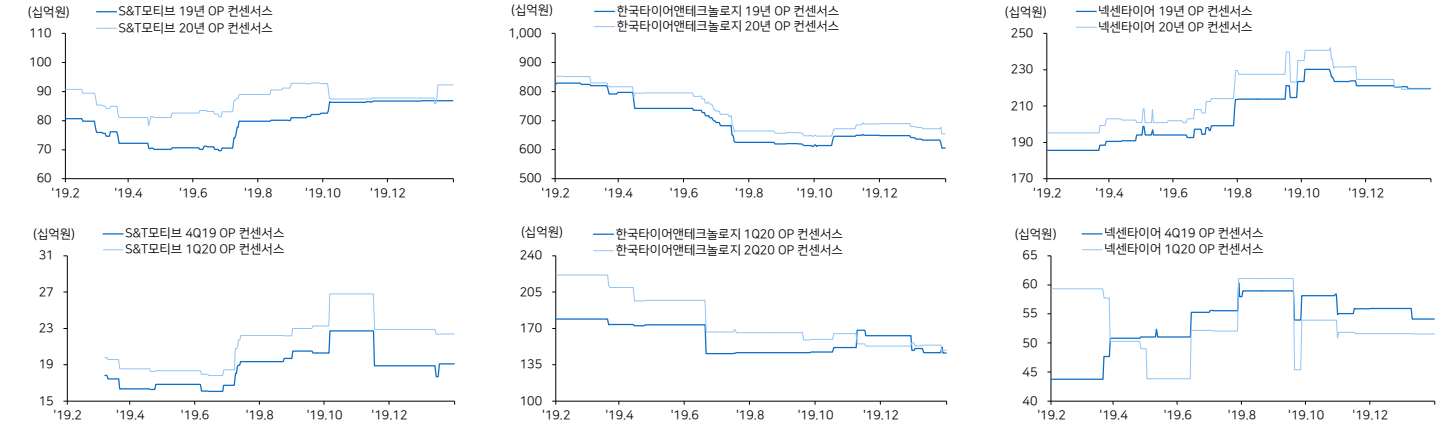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기아차 1월 유럽시장 전기차 판매량 전년보다 70% 증가 (서울경제)

현대·기아차가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을 대폭 늘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지난 달 유럽시장에서 현대·기아차 전기차 판매량은 6,083대로 지난해 1월 3,552대보다 71.3% 증가. <https://bit.ly/2SBTznt>

현대차, 세계 첫 수소연료 지게차·굴삭기 만든다 (한국경제)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건설기계와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지게차와 굴삭기를 개발. 현대차는 현대건설기계 연구소에서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 공동 개발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힘. <https://bit.ly/328gtrf>

“中 현지 출근 못해”... 현대차 울산 1·2공장 모두 스톱 (조선비즈)

울산1공장은 20일까지 사흘간 가동을 멈추고, 울산2공장은 21일 하루 동안 휴업. 현대차 관계자는 “와이어링 하니스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아 공장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 <https://bit.ly/37Aukbr>

도요타·혼다·닛산 중국 공장 일부 재개...“통상의 절반 수준”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조업을 중단했던 일본계 자동차업체들의 중국 공장이 일부 다시 가동을 시작. 농민공이 연휴가 끝난 후에도 아직 많이 도시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 생산 정상화를 막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힘. <https://bit.ly/38CZlHC>

기아차, 쏘렌토·카니발이 K5·셀토스 바통 이어받는다 (데일리안)

기아차의 내수 판매를 견인중인 K5와 셀토스의 흥행을 신행 쏘렌토와 카니발이 이어받으려 관심. 쏘렌토와 카니발은 각각 3월과 7월 출시 예정으로, 글든사이클이 도래한 기아차의 추가적인 판매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중. <https://bit.ly/37GbPIP>

또다시 생산 멈춘 수출용 코나 ... 유럽 환경규제 대응 적신호 (디지털타임스)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이 재가동 이후 하루 만에 다시 멈추면서 ‘수출용’ 코나의 생산도 중단. 코나는 작년 한국지엠(GM) 트렉스를 제치고 지난 2015년 엑센트 이후 4년 만에 현대차가 배출한 최대 수출 차종. <https://bit.ly/25FVlfq>

현대차, 中판매 반토막...·C공포에 떠다 (서울경제)

현대자동차의 올 1월 중국 현지 소매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반토막 남. 자동차 소비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데다 올해 설 연휴인 춘제가 지난해와 달리 1월부터 시작해 영업 일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것. <https://bit.ly/325XYnh>

Tesla in talks to use CATL's cobalt-free batteries in China-made cars (AN)

The electric vehicle maker is seeking to reduce its use of expensive cobalt as it considers lithium iron phosphate batteries from 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 Co., Reuters reported. <https://bit.ly/25WwDQD>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항목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